

5 레진 중합 – Check bite – 교합기 부착

레진 중합을 하면 중합 조작에 따른 재료의 오차(레진의 중합 변형)가 생깁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centric bite를 채득

하여 교합기에 재부착하고 교합의 오차를 수정하고 나면 총 의치가 완성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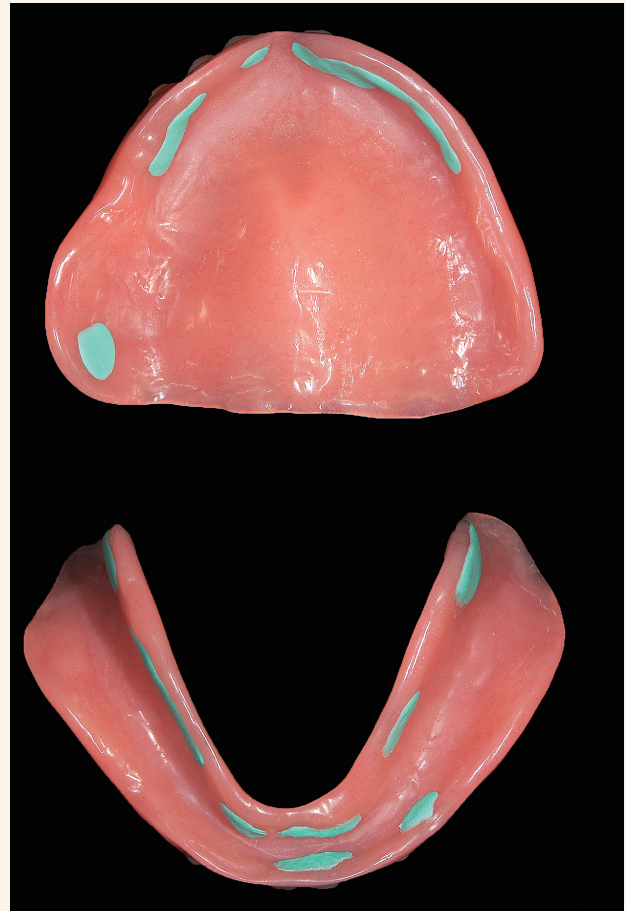
5-1 레진 중합 후의 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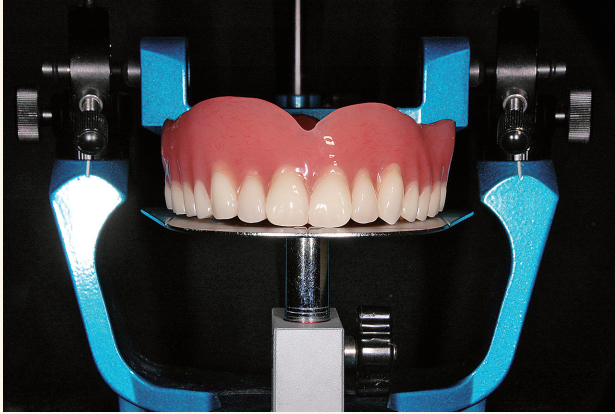
5-2 레진 중합된 의치의 Check bite

Bite 왁스를 사용하여 centric bite를 채득합니다. 왁스 의치 때와 마찬가지로 상하의 치아가 접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자는 undercut을 제거할 때 점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5-3 레진 중합된 의치의 교합기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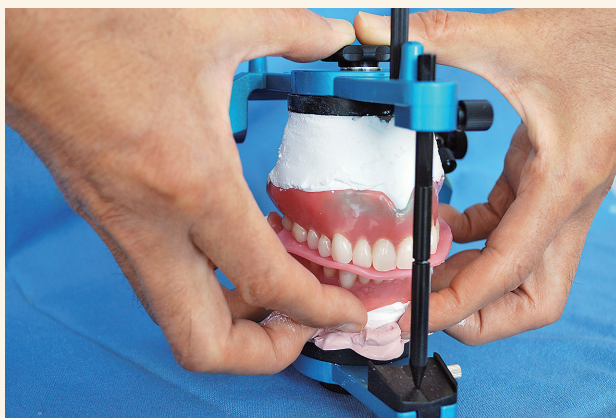
Face bow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교합평면판을 이용하여 상악 위치를 교합기에 부착합니다.



Check bite를 이용하여 레진 중합된 의치를 교합기에 부착합니다.



Centric bite를 사용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상하악 모형을 술자가 손가락으로 확실히 고정하여 fast setting 석고(Xanthano, Heraeus-Kulzer Japan)를 사용하여 교합기에 부착합니다. 이때 incisal pin을 bite 재료의 두께(2~3mm)만큼 거상해 둡니다.



Column - 젓가락 문화 안에서 총의치

동양에는 젓가락 문화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전통적으로 일식 속에서 젓가락 문화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일식(절인 음식, 초밥 등)은 음식을 젓가락으로 집어 전치로 베어 문 후 구치로 저작하여 연하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매우 자랑할 만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1976년 일본에 소개된 Dr. E. Pound의 의치는 전치를 발음으로 배열합니다(s, v, f). 따라서 전치는 음식을 베어 무는 것이 아니며 저작에 이용하는 것은 구치 치열만으로, knife와 fork의 문화에 적응한 lingualized occlusion입니

다. 일본에서도 이 방법은 매우 간편하여 널리 보급되었고 현재에도 총의치의 주류는 lingualized occlusion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일본인의 전통적 문화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감히 필자들은 전치로도 음식을 베어 물 수 있으면서 구치로도 저작하기 쉬운 완전 균형교합에 의한 보형용 의치 제작법을 이 책에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6 교합조정 – 의치의 완성

본서의 방법으로 총의치를 제작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가 바로 교합조정입니다.

앞의 인공치 배열 향에서 서술한 대로 전치로 베어 물 수 있는 양측성 평형교합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순서는 오른쪽 박스와 같습니다. 이때 기능교두는 기본적으로 삭합하지 않고 조정을 진행합니다.

이 교합조정 방법은 필자가 1972년 A.G. Lauritzen 선생님(미국)으로부터 배운 방법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총의치 보철학”[林都志夫(Hayashi Toshio) 편저, 의치약출판]이나 “총의치 테크닉 제3판”[津留宏道(Tsuru Kodo), 西浦恂(Nishiura Makoto), 根本一男(Nemoto Kazuo), 平沼謙二(Hiranuma Kenji), 松本道之(Matsumoto Michiyuki) 편저, 의치약출판]의 내용도 참고하였습니다.

교합조정 순서

- ① 중심위의 교합조정(MUDL의 법칙)
- ② 측방운동 시의 교합조정(BULL의 법칙, LU 또는 BL)
- ③ 전방운동 시의 교합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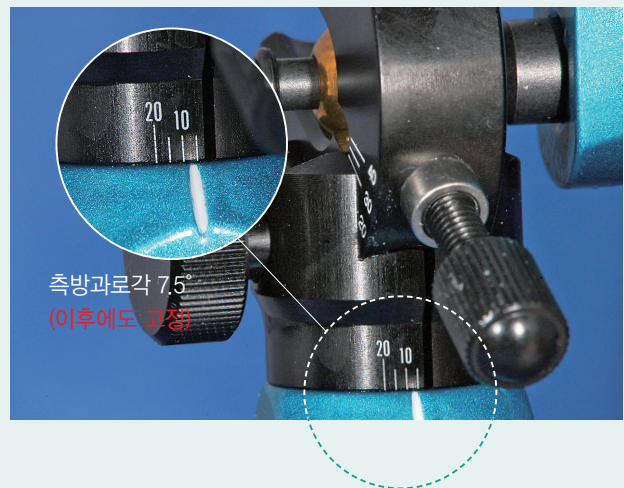
6-1 교합조정의 실제

① 중심위의 교합조정(MUDL의 법칙)

먼저 MUDL의 법칙을 이용하여 중심위의 교합조정을 시행합니다.

MUDL의 법칙이란 Lauritzen 선생님의 의해 제창된 교합조정 방법으로 중심위의 조기접촉을 피하기 위해 이용됩니다. MU는 상악 구치의 근심사면을 의미하고 DL은 하악 구

치의 원심사면을 의미합니다. 이 사면들을 선택적으로 삭합함으로써 하악을 중심위까지 후퇴시킬 수 있습니다(“신편 교합학사전”[保母須彌也(Hobo Sumiya), Quintessence 출판]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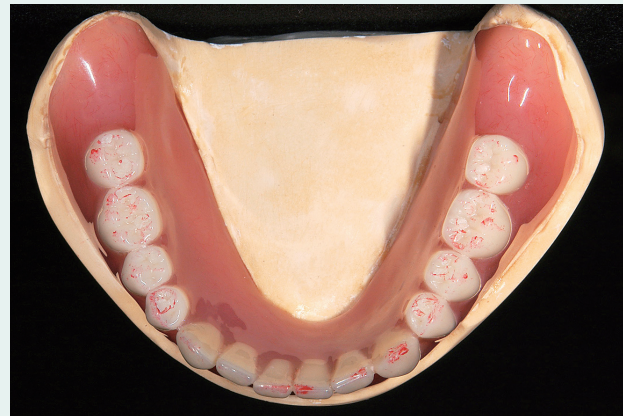
중심위의 교합조정 전후



전



후



② 측방운동 시의 교합조정 (BULL의 법칙, LU 또는 B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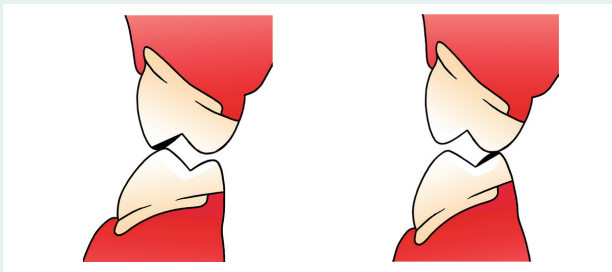
다음으로 Bonwill의 3점접촉 교합이론을 기초로 측방운동 시의 교합조정을 합니다. 측방운동 시 작업측에서는 상하악 구치의 협측교두가 서로 접촉하고 상하악 구치의 설측교두가 서로 접촉하며, 평형측에서는 상악 구치의 설측교

두와 하악 구치의 협측교두가 접촉하여 모두 3점이 접촉하도록 하여 평형측의 대구치에서 균형을 잡도록 교합조정을 합니다.

작업측의 교합조정 (BULL의 법칙)

작업측에서는 BULL의 법칙을 이용합니다. BULL의 법칙은 C.H. Schuyler(미국)에 의해 제창된 교합조정 방법입니다. BU는 상악 구치의 협측 사면을 의미하고 LL은 하악 구치의 설측 사면을 의미합니다. 이 사면들을 선택적으로 삭합하면

작업측의 교두간섭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신편 교합학사전”[保母須彌也(Hobo Sumiya), Quintessence 출판]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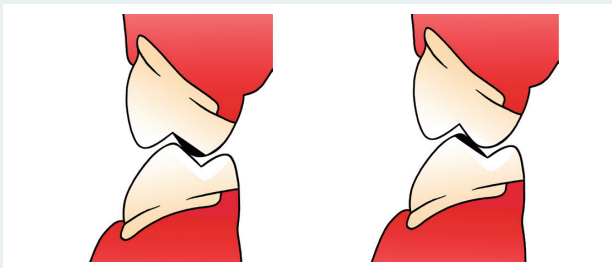


작업측에서는 BULL의 법칙을 이용하여 상악 구치의 협측 사면(BU)과 하악 구치의 설측 사면(LL)을 선택적으로 삭합합니다(참고문헌 4에서 인용).

평형측의 교합조정 (LU 또는 BL)

평형측의 교합조정에서는 LU(상악 구치의 설측 사면)이나 BL(하악 구치의 협측 사면)을 선택적으로 삭합하여 평형측

의 교두간섭을 제거합니다.



평형측에서는 상악 구치의 설측 사면(LU)과 하악 구치의 협측 사면(BL)을 선택적으로 삭합합니다(참고문헌 4에서 인용).

Column – ‘씹는 효과’를 한 사람이라도 많은 환자에게 알립시다.

치과치료 본래의 목적은 구강기능의 유지와 회복입니다. 치과의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구강기능이 저하되거나 구강기능을 상실한 환자의 기능회복 요구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능회복의 대표적인 치료는 총의치이므로 환자로서는 치과 기술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기 쉬운 것 또한 총의치 치료입니다. 환자로부터 “저 선생님은 틀니를 잘 만들어”라고 평가를 받으면 다른 치료에서도 높은 평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의과-치과 연계’라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그 때문인가 의과의 의료 현장이나 환자로부터도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구강관리’는 치과위생사의 전문 분야이지만 간호사도 제대로 된 지도를 받는다면 아무 문제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과-치과 연계의 시대에 우리들 치과의 역할에서 ‘구강관리’뿐만 아니라 구강기능의 회복도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치아가 없어 입으로 잘 먹을 수 없는 환자를 위하여 의과에서 총의치 제작을 의뢰하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의과의 의사 중에서는 ‘치과=틀니’라는 생각을 가

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틀니’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씹을 수 없는 총의치가 되었다면 서서히 기대가 어긋나서 의과-치과의 연계가 붕괴되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도 ‘확실히 씹을 수 있는 총의치 치료’의 기술을 갖고 닦아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초고령사회의 가장 중심에 있는 현재, “고령을 맞이하기 전에 그리고 건강할 때 구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구강기능을 회복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교육(유비무환)을 한층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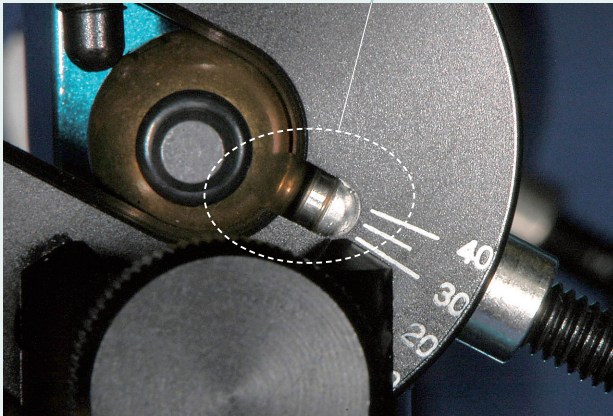
우리들 임상가는 ‘구강관리의 중요성’과 ‘씹는 효과’의 구체적인 실례를 한 사람이라도 많은 환자에게 치료효과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내 세상 사람에게 보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강을 청결하게 하고 씹는 것으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환자가 정말로 이해해 준다면 지금까지 이상으로 구강이나 치아를 중요시할 것입니다.

구강이나 치아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더 널리 알려진다면 좋은 질의 치과치료를 희망하는 환자도 늘어날 것이 틀림없습니다. 치과에게는 큰 기회가 바야흐로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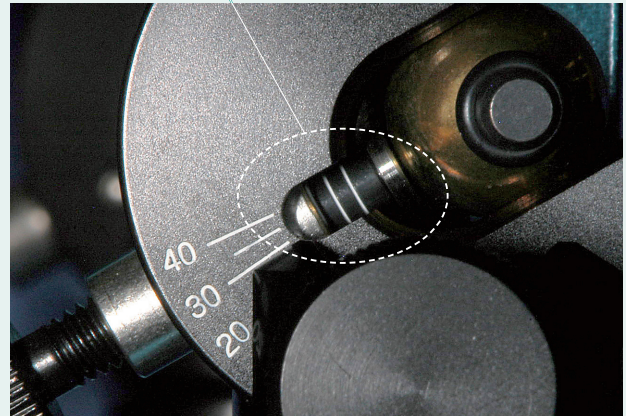
측방운동 시
1 오른쪽 작업측(왼쪽 : 평형측)의 교합조정

오른쪽 나사를 0mm에 고정하고 왼쪽 나사를 움직이면서 우측 상하악 구치의 협측교두정이 서로 접촉될 때까지 편심운동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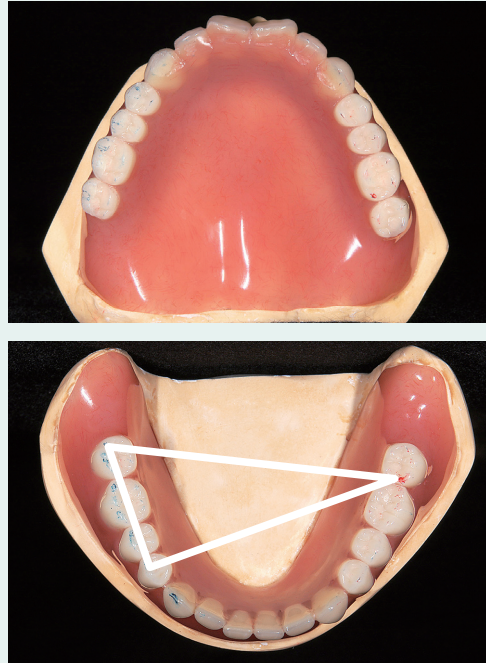
오른쪽 나사를 0mm에 고정



왼쪽 나사를 움직이면서 편심운동을 시킵니다



평형측의 대구치에서 균형을 잡도록 교합조정을 합니다.



우측 측방운동 교합조정 전후



전



후

